

三國時代 家形土器에 관한 研究*

愼 仁 珠

Shin, Injoo

東亞大學校博物館 學藝研究員

1. 머리말

家形土器란 三國時代 사람들이 사용한 토기 가운데 가옥 모양을 본 따서 제작한 토기를 말하는데 현재까지 당시 것으로 알려진 것은 17점 정도이다. 비록 토기로 제작된 模型이지만 당시의 가옥형태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늘날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점은 미술사나 고고학분야에 있어서는 문헌 기록보다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金元龍氏¹⁾가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룬 것을 비롯해서 다른 연구자들의 간략하게 언급된 몇몇 논고가 있는 정도의 서설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²⁾ 기존 연구내용의 주된 흐름은 家形土器가 高床式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원을 남방에 두고 있으며³⁾, 기능면에서는 쌀,

* 본 연구는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의 2000년도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金元龍, 「新羅家形土器考」-古代韓國에 있어서의 南方의要素, 『金載元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69, pp.847-864

2) 이난영, 『토우』, 대원사, 1993

李松蘭, 「古新羅 古墳出土 土偶裝飾土器에 보이는 南方의要素」 『考古歷史學志』 第十六輯, 2000, pp.465-495

崔憲燮, 「高床建物址의 機能에 대한 小考」 『昌原大學校博物館年報』, 2000, pp.97-111

3) 金元龍氏(「新羅家形土器考」-古代韓國에 있어서의 南方의要素, 『金載元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69, pp.847-864)는 家形土器가 高床式이라는 요소에 착안하여 당시 이러한 목조건물의 기원을 남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그 증거로서 王禎의 『農書』卷16의 기록(…京 倉之方者 廣雅云 字從广 原倉也 又謂 四起曰京 今取其方而高大之義 以名倉曰京 則其象也 夫因京有方圓之別 北方高亢 就地植木 編條作茈 故圓 卽因也 南方墊溼 離地嵌板作屋 故方 卽京也 此因京又 有南北之宜 庶識者辨之 擇而用也 時云大云倉廩 次因京 名貯梁糧 取象成可 是今迷古制 方圓未識有他名…)과 중국 安志敏의 논고 「“干闥”式建築의 考古研究」, 『考古學報』 第一・二期, 一九六三(干闥이란 원래 양자강 남쪽 호북성 서남부 일대에 살고 있던 獠族의 원시

보리와 같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死者의 재생과 내세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염원하기 위해 무덤 속에 부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러한 해석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당시의 자료가 빈약한 반면 지금은 17점이나 될 정도로 증가된 점에 주목하고 家形土器 해석에 대한 새로운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家形土器는 종래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줄곧 다루어온 注口附容器와는 용도나 시기상으로 상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더욱 관심을 갖게 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여기서 연구순서는 먼저 三國時代와 統一新羅 家形土器를 국가 또는 지역별로 사례를 집성하고 그 특징을 개략토록 한다. 그 다음 외형상의 특징을 통해 형식을 분류하여 지역성과 시기성 등을 추정토록 한다. 마지막 토기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당시 동일성격을 가진 다른 象形土器와도 비교 분석하여 家形土器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三國의 家形土器 事例 (표1)

1. 高句麗

高句麗의 家形土器는 평양철교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한 점 있다.⁴⁾ 이 한 점으로 高句麗 家形土器를 대신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자료증가를 기대하면서 여기서는 일단 대표적인 양식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적 樹上주거에서 출발하였는데 화남지구에서는 그러한 수상주거뿐 아니라 본격적 고상건축도 고대부터 성행하였으며, 雲南省 晉寧縣 石寨山古墳 출토의 유명한 銅器중에는 이 지방 고대 漢族의 발달된 간난식 건축의 모형들이 들어 있다. 고상가옥은 화남지구에서 성행하면서 점차 각지로 퍼져 갔는데 황하 이북지구에 관해서는 잔존자료가 없어 자세하지 않다.)를 들고 있다.

李松蘭氏は 고신라에서 남방적 요소가 반영된 예로 가야금, 남방식으로 짐을 나르는 토우, 고상가옥을 들고 있다. 특히 고상가옥의 경우 중국에서 후한이후 양자강 이북의 지역까지 확산되었지만, 그 이전에 출토된 한대 가옥형 명기를 통해 광동성 등 남부지방의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보고 삼한시대부터 남방지역과의 교섭루트가 있었던 신라에서 고구려를 통하지 않고 해로를 통해 고상가옥의 수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운남지역을 주목하고 이곳을 동남아시아식 고상가옥이 중국남부에 유입되는 통로로 보고 이곳을 비롯한 중국 남방지역에서 고상가옥형 건물이 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라와 남방문화권과의 교섭은 적석목곽분 세력이 아닌 조기묘제인 석관묘에서 이러한 남방적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삼한시대부터 5세기까지 꾸준한 남방권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李松蘭, 「古新羅 古墳出土 土偶裝飾土器에 보이는 南方的要素」 『考古歷史學志』 第十六輯, 2000, pp.465-495)

4)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p.147

이 토기는 바닥이 장방형인 地上式 건물이며 지붕은 우진각형이다. 지붕 전면에는 일정간격으로 골을 파서 기와를 얹은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건물 정면에는 내부로 관통하는 두 개의 둥근 구멍이 각각 있고, 둥근 구멍 사이에는 방형 홈이 파여져 있다. 이 구멍이나 홈은 자세하지 않지만 소성시 내구성을 돕는 것은 물론 조형상으로 창틀이나 문을 상징하여 출입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체는 적갈색 연질이며 높이 8.3cm의 작은 明器로서 무덤 부장품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으로 대략 5세기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百濟

百濟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현재 2점 정도가 알려져 있다. 그 중 한 점은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정확한 출토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도2} 이 토기는 바닥이 장방형인 地上式 건물이며 지붕은 맞배형이다. 지붕 양 측면에 길고 가는 점토띠를 세로로 일정간격 붙이고 용마루 양끝은 살짝 치켜올려 鷗尾를 표현하는 등 기와지붕을 묘사하고 있다. 건물 정면에는 방형 구멍을 나란하게 두개 배치하여 창이나 출입구 시설을 나타내고 있다. 길이 57.0cm 정도로 家形土器 가운데는 비교적 대형에 속한 것이다. 대략 6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한 점은 다보성 고미술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인데 역시 정확한 출토지는 알 수 없다.^{도3} 이 토기 역시 바닥이 장방형인 地上式 건물이며 전자의 가형토기를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본체와 지붕의 높이가 비등한 것과는 달리 본체의 높이가 현저하게 높은 특징이 있다. 지붕은 맞배형이고 용마루가 위로 두드러지게 솟아있으며, 지붕 양 측면에 세로선을 일정간격으로 선각하여 기와지붕을 표현하고 있다. 건물 정면에는 삼각형 구멍 두개를 나란히 배치하여 창이나 출입구를 나타냄과 동시에 소성시 내구성을 조력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전자와 같다. 높이 15.2cm 정도의 小形明器로서 6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p.147

6) 다보성고미술전시관, 『다보성고미술명품전』, 1996, p.30

3. 新羅·加耶

新羅와 加耶지역의 家形土器는 13점 정도의 사례가 남아있다. 高句麗와 百濟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마찬가지로 명확한 출토지와 출토상태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주사라리 5호 출토품^{7)도4}

高杯의 臺脚 위에 가옥형의 본체를 올려놓은 형상이며 큰 범주에서는 單柱式 高床建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맛배형 지붕은 용마루에서 처마쪽으로 내려갈수록 등글고 약간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며 素文으로 처리한 것은 초가 지붕을 상징하는 듯하다. 지붕 한쪽 처마 가까운 곳에 부착된 귀패형 注口와 동체가 筒形인 것은 용기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지붕 合閣部에는 목조건물양식을 엮을 수 있는 보과 대공을 점토띠로 표현하여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건물 측면에는 2줄 침선으로 구획된 방형 구역내에 둥근 구멍을 가진 반원상의 문고리가 각각 부착되어 굳게 닫혀있는 출입문 또는 창문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각은 원통형이며 끝은 나팔형으로 벌어지고 하단에는 침선을 두르고 있다.

사라리유적은 경주시내로부터 약 15km 떨어져 있는 사라리 마을 앞산 해발 45m의 나즈막한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보고자에 의하면 家形土器는 길이 400cm, 폭 200cm, 깊이 75cm의 장방형 묘광을 파고 그 속에 길이 315cm, 폭 150cm의 목곽이 안치된 제5호 목곽묘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유물은 북단벽 아래에서 일단투창고배, 이단투창고배, 장경호 등이 출토되고, 가형토기는 남단 벽쪽에 철모, 철검 등의 철기류와 함께 놓여 있었다고 한다. 가형토기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회청색 경질이며 높이 20.3cm, 대각 높이 10.6cm, 대각 직경 10.8cm 크기이다. 동반유물을 참고하면 대략 4세기 후반으로 편년하고 있으며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다.

2) 경북대박물관 소장품^{8)도5}

중앙에 방형 透孔을 가진 받침대 四隅에 사각기둥을 올려 세우고 그 위에

7)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慶州 舍羅里 古墳群 發掘調査」 현장설명회자료5, 1996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p.150

8)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p.151

慶北大學校博物館, 『慶北大學校博物館圖錄』, 1988

가옥형의 본체를 부착시킨 多柱式 高床建物이다. 맛배형 지붕은 용마루에서 처마쪽으로 둥글게 내려 처지고 윗면을 素文으로 처리하여 초가를 연상케 한다. 지붕 용마루 천장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친 곳에 짧은 원통형 注口를 부착하고 있는데 筒形으로 내부가 비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시 용기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체는 회청색 경질이며 지붕 윗면에 녹색색 자연유가 남아 있다. 높이 11.5cm의 소형이며 단순하고 정제된 느낌을 갖게 하는 안정감 있는 작품으로 출토지 미상이지만 대략 5세기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송실대박물관 소장품⁹⁾도6

四隅에 높이 1cm정도의 짧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가옥형의 본체를 얹은 多柱式 高床建物이다. 맛배형 지붕은 용마루에서 처마쪽으로 둥근 곡선을 이루면서 점점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이루다가 그 끝이 앞쪽으로 반전해서 돌출하고 있다. 지붕은 素文으로 초가지붕으로 추정되는데 정상부에 원통형 注入口와 한쪽 처마끝에 注出口를 부착하고 있으며 筒形 동부를 감안하면 역시 당시 용기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외형상 주입구는 구연부의 폭이 넓고, 주출구는 윗 부분을 반원형으로 도려내어 아래부분이 앞으로 돌출한 귀땀 형태가 되어 술이나 물과 같은 액체를 따르기에 용이한 구조이다. 건물 四隅의 정면과 측면에는 점토띠를 세로로 부착하여 木柱를 표현하고 있는데 목주에는 상하로 각각 둥근 돌기를 덧붙이고 있다. 높이 16.0cm이며 태토에 사립이 혼합된 점토를 사용한 회청색 경질토기이다. 창녕지방 출토라고 전해지며 대략 5세기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이화여대박물관 소장품¹⁰⁾도7

방형 점토판 四隅에 약 3cm 높이의 사각기둥 4개를 각각 세우고 그 위에 가옥형의 본체를 올려놓은 多柱式 高床建物이다. 맛배형 지붕은 용마루에서 경사지게 처마로 내려오면서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상이다. 지붕 정상부 중앙의 약간 볼록하게 솟은 부분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 注入口로 사용한 느낌을 갖게 하지만 상단부가 파손되어 원상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건물 측벽에는 끝이 절단된 약 1.1cm 길이의 圓筒管이 돌출하고 있어 注出口임을 짐작케 하고 있어 역시 용기임을 알 수 있다. 素文의 지붕은 초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용마루 아래의 도리와 처마 밑에 돌출된 서까래는 목조건축양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9)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p.151

1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6, p.14

정면 한쪽에 창호를 나타내는 문양이 음각되고 그 하단에도 2조 내지 3조의 음각선이 사면에 있다. 높이 13.5cm의 소형이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한 회청색 경질토기이고 지붕에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출토지 미상이나 대략 5세기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小倉 수집품¹¹⁾도8

방형 받침대 위에 9개의 사각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가옥형의 본체를 올려놓은 多柱式 高床建物이다. 기둥은 부러진 것을 뒷날 복원한 것이다. 맛배지붕 위에 점토띠를 田字형으로 부착하였는데, 이엉을 엮어 덮은 초가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빗줄을 매어둔 상태라고 생각된다. 지붕 정상에는 구연 외벽에 突線을 가진 원통형 出入口가 있고, 측면 문 위쪽 지붕 아래에는 管狀의 出入口가 돌기되어 있다. 역시 동체가 筒形으로 내부가 비어 있어 당시 용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출구 아래의 창문은 상하 2단으로 빗장이 걸려 있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x'자상의 문양이 음각되어 있다. 나머지 세 벽면은 3줄의 세로띠를 선각하고 그 속에 역시 'x'자상의 문양이 음각되어 있다. 높이 17.4cm의 회청색 경질토기이며 경남지역 출토로 전해지고 대략 5세기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 호암미술관 소장품¹²⁾도9

방형의 점토판 위에 9개의 원형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가옥형의 본체를 올려놓은 多柱式 高床建物이다. 맛배형 지붕은 용마루가 수평하고 내림마루는 점토띠를 덧대어 융기시켰으며 처마아래 양쪽 동체부위에는 3군데씩 작은 원통형 점토띠로 지붕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다른 한쪽 면은 결실된 상태이다. 현존하는 지붕 표면에는 횡으로 5행의 침선을 넣어 4단으로 구획 지운 뒤 첫째 단에는 집선문, 둘째 단에는 삼각집선문을 각각 시문하고 있다. 이렇게 구획 지운 침선은 이엉을 덮은 지붕이 바람을 지탱하기 위해 배치한 동아줄인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초가지붕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체 한쪽 측벽에는 귀패형 注口가 배치되고 내부가 筒形으로 비어 있어 용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주구 아래에는 창문을 나타내는 격자문이 음각되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표현되어 있다. 나머지 본체 세벽 중앙에는 2줄 가로선 사이에 삼각집선문이 음각되어 있다. 높이 20.3cm의 회청색 경질토기이며 출

11) 東京國立博物館, 『寄贈小倉コレクション目録』, 昭和57年, p.19

12)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p.149

토지는 진주 부근으로 전해지고 대략 5세기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호림박물관 소장품¹³⁾도10

방형 점토판 받침대 위에 9개의 원형기둥을 세우고 가옥형의 본체를 올려 놓은 多柱式 高床建物이다. 맞배형 지붕에는 용마루와 나란하게 두줄의 돌대문을 상하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는 격자문과 삼각집선문을 음각하여 짚으로 된 이엉 위에 방풍을 위한 새끼줄을 상하로 엮어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쪽 측벽 중간에 위로 향한 귀대형 注口를 부착하여 당시 액체를 따르는데 사용하는 용기로서의 기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각 벽면에도 세로선을 음각하고 그 사이에 격자문을 시문하고 있다. 회청색 경질의 출토지 미상인 이 토기는 높이 15.5cm이며 대략 5세기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 창원다호리 출토품¹⁴⁾도11

이 토기는 유적의 입지와 규모로 보아 최고 유력자의 묘로 추정되는 B1호 서쪽 주구부 토광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 토광은 B1호 유구와 관련된 제사유구가 분명하며, 家形土器片과 함께 高杯, 大壺, 器臺, 明器形小壺, 劍菱形杏葉, 鞍橋片 등이 출토되어 각종 토기와 마구류가 동반하여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형토기는 심하게 파손된 채 각각 다른 지점에서 한점씩 2점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1점은 지붕, 벽체, 기둥의 일부가 잔존하는 多柱式 高床建物이다. 파손되었지만 복원결과 맞배형 지붕에는 방풍용의 새끼줄로 추정되는 돌선이 田자상으로 배치되어 있어 초가지붕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붕 중앙에 점토띠로 된 용마루가 있고 양 가장자리의 내림마루도 돌선으로 처리시킨 형태이다. 처마 끝에는 작은 원형 점토를 부착하여 서까래를 나타낸 것이 두개 남아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원형 점토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남아 있다. 맞배지붕에서 보이는 양측면의 풍판은 없으며 도리와 대공의 형태가 보이고 용마루는 처마의 양단보다 약간 더 돌기된 듯하다. 출입시설은 건물 한쪽 정면에만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벽면을 ‘工’자형으로 잘라내어 양쪽으로 직각이 되도록 열어놓은 여닫이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출입시설 상부

13)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p.149

湖林博物館, 『湖林博物館名品選集Ⅱ』, 1999, p.184

14) 임학중,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調査」, 『3~5세기 금강유역의 고고학』, 韓國考古學會, 1998
국립중앙박물관, 『겨레와 함께 한 쌀』, 2000, p.174

國立中央博物館·慶尙南道, 『昌原茶戶里遺蹟』, 2001, pp.136-139

에도 점토띠를 길게 부착하여 문틀을 나타내고 있는 듯 하지만 직선이 아니고 약간 아래로 굽은 곡선형이며 아래 부분에도 극히 일부의 점토를 남겨 문지방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기둥은 네 개만 남아 있는데 그 중 한 개만 본체에 부착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떨어져 있다. 가옥 본체에 남은 접합흔으로 보아 기둥은 정면 3열, 측면 3열 모두 9개가 예상되지만 중앙이 비어있어 실제 8개로 추정된다. 복원 높이 28.0cm, 복원 정면 폭(벽체) 17.5cm, 측면 폭(벽체) 12.0cm이며 소성상태가 양호한 회청색 경질토기이다.

다른 1점은 본체가 모두 결실되고 지붕만 남아 있는 것이다. 역시 맞배형 지붕에는 가로 2줄, 세로 2줄의 점토띠를 부착하여 田자상을 이루는데 초가지붕 형태였다고 추정되고, 기둥은 확인할 수 없어 고상건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붕에는 단면 원형의 점토띠를 올려 용마루를 표현하고 양단의 가장자리에는 점토대를 붙여 내림마루를 나타내고 있으며 내면에는 도리와 대공이 부착되어 있다. 맞배 지붕에서 자주 보이는 풍판시설은 없고 용마루가 처마의 양단보다 약간 더 돌기된 것은 전자와 동일하다. 이 토기는 B1제사-54의 鉢形器臺 위에 놓여 있었으며 잔존 높이 9.0cm, 정면 폭(지붕) 19.5cm, 복원 측면 폭(지붕) 16.0cm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6세기 전반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15)도12}

高床式과 같이 기둥 위에 가옥형의 본체를 올려놓은 종전의 예와는 달리 가옥 본체의 세 벽면은 지상에 설치되고 나머지 한쪽 벽면에만 사다리를 설치하여 이층으로 오르게 하는 重層式¹⁶⁾ 건물형태로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층에 기거한다는 의미에서는 高床建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건물의 구조상 지붕은 한쪽 측면에서는 맞배형을 이루지만 나머지 세 면은 우진각형과 유사한 투구 형태를 하고 있다. 지붕 위에는 방풍을 위한 새끼줄을 상징하는 점토띠가 가로와 세로로 격자상을 이루고 있어 초가지붕임을 알 수 있다. 용마루에는 동물상의 토우가 부착되고 사다리에도 두 마리의 동물이 대면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전자를 고양이, 후자를 다람쥐나 쥐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지붕 위의 동물은 사다리 위에 있는 동물들로부터 가옥을 수호함과 동시에 이 건물자체가 신성한 공간임을 나타내는 듯하다. 舍閣部는 폐쇄된 일반

15)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p.151

16) 이 家形土器처럼 지상에 사다리를 두고 이를 통해 이층공간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조성된 건물을 필자는 '重層式建物'로 정의하고 고상식건축의 범주속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지붕과는 달리 開口된 상태인데 그것은 환기나 통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물 정면 벽면에서 지붕으로 연결되는 곳에 원통형 注口가 부착되어 용기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외견상으로는 마치 굴뚝과 같은 형상이다. 사다리가 놓인 벽면의 양 가장자리에는 ‘X’자 문양이 음각되고, 외벽에는 세로로 긴 점토대를 내려 붙여 기둥을 표현하고 있다. 높이 12.5cm이고 경북 현풍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며 5세기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 호암미술관 소장품^{17)도13}

세 벽면을 지상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쪽 측면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이층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한 重層式 건물형태이다. 지붕은 한쪽 측면이 맞배형이지만 나머지 정면과 다른 한쪽 측면은 우진각형과 유사하다. 지붕 위에 방풍을 위한 새끼줄을 나타내는 점토띠를 붙인 흔적은 초가지붕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다리가 놓인 벽면 상부에는 대공과 도리의 표현이 뚜렷하고 합각부는 트여 있으며 그 아래 손잡이가 있는 여닫이문을 표현하고 있다. 건물의 정면 벽체에서 지붕으로 이어지는 곳에 원통형 注口가 부착되어 역시 용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외견상으로는 굴뚝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출입시설이 있는 양쪽 벽면 가장자리의 격자문은 창호를 의미하고, 외벽을 돌아가며 세로로 긴 점토대를 부착한 것은 기둥을 표현한 듯하다. 높이 11.9cm이고 출토지는 미상이며 대략 5세기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 호암미술관 소장품^{18)도14}

세 벽면을 지상에 고정시키고 한쪽 벽면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이층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한 重層式 건물형태이다. 지붕 한쪽 측면은 맞배형이지만 정면과 다른 한쪽 측면은 우진각 또는 모임지붕처럼 보이는 것이다. 용마루와 서까래 방향으로 점토띠가 부착되고 점토띠 위에 정모양의 돌기가 각각 3개씩 붙어 있는데 이는 초가지붕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붕의 점토대가 부착되지 않은 면과 약간 솟아올라 강조된 내림마루 부분에는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출입시설이 있는 면에는 대공과 도리의 표현이 뚜렷하며 합각부는 開口되어 통풍과 환기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출입구 양측의 원형기둥은 지붕까지 이어지고 나머지 세벽에도 점토대를 띄엄띄엄 부착하여 기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위에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사다리 모양으로 보이는 구조물 위에는 여닫

17)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p.148

18) 三星文化財團, 『湖巖美術館名品圖錄』 II, 古美術2, 1996, p.187

이문이 열려있고 문 가운데 꼬리가 달린 네발짐승의 토우가 있다. 지붕 한쪽 정면에 원통형 注口를 배치하여 역시 용기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높이 16.8cm, 길이 15.2cm, 폭 15.3cm이고 출토지는 미상이며 대략 5세기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2) 호암미술관 소장품¹⁹⁾도15

장군형토기 형태로 주구부가 있는 상단에 맞배형 지붕모양을 부착시키고 그 아래에 출입문과 창문을 선각하여 地上式 건물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맞배형 지붕은 양측면에 굽은 凹凸형태의 굴곡선을 처마 끝까지 표현하여 막새기와가 부착된 기와지붕을 묘사하고 있다. 지붕 양쪽으로 쳐든 용마루의 곡선미는 사실적이며 내림마루는 굽은 단으로 구분하여 강조하고 있다. 용마루 중앙에는 원통형 注口가 부착되고 바닥에는 원형의 작은 구멍이 있다. 건물 한쪽 정면 벽에는 세선으로 음각된 출입문과 창문이 묘사되어 있으며 측벽에는 소성시 생긴 균열자국이 남아 있다. 회청색 경질토기이지만 전체색조는 흑색에 가깝고 자연유가 산화되어 황갈색을 띠고 있는 부분도 있다. 높이 35.0cm, 길이 36.8cm, 폭 22.6cm이며 출토지는 미상이고 대략 6세기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 경주보문동 출토품²⁰⁾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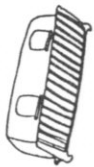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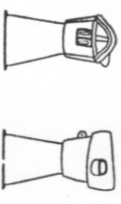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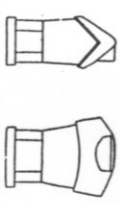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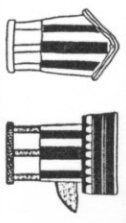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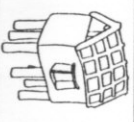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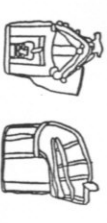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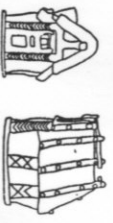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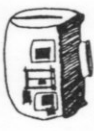
바닥이 장방형인 地上式 건물형태이며 骨壺 外函으로 사용된 토기이다. 지붕은 팔작형 기와지붕으로 암·수키와를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 용마루 양단에는 鷗尾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서까래의 소슬 합창 부위에는 花文이 새겨져 있다. 건물 한쪽 측벽에는 사방 16cm 크기의 門戶가 있고 문호 四隅에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돌기형의 돌쩌귀 4개가 부착되어 있다.

나머지 세 벽면의 바닥부분에는 가로로 긴 점토대를 붙이고 그 아래 수직하게 짧은 세로의 점토대를 붙여 가옥의 기단부를 나타내고 있으며 벽면에는 점렬로 된 부정확한 화문이 있다. 높이 43.5cm, 바닥 단면 28.0×36.0cm이고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되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 三星文化財團, 『湖巖美術館名品圖錄』 II, 古美術2, 1996, p.188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p.148

20) 國立慶州博物館, 『新羅瓦塼』, 2000, p.408

고구려	1	평양/국립중앙박물관	5C	
	2	출토지미/상/호암미술관	6C	
백제	3	출토지미/상/다보성고미술전시장	6C	
	4	경주시/리5호/영매원	4C	
	5	출토지미/상/경북대박물관	5C	
	6	傳창녕/송실대박물관	5C	
	7	출토지미/상/이화여대박물관	5C	
	8	傳경남/小倉수집	5C	
	9	傳진주/호암미술관	5C	
신라 · 가야				
신라	10	출토지미/상/호암박물관	5C	
	11	창원다호리/국립중앙박물관	6C	
	12	창원다호리/국립중앙박물관	6C	
	13	傳원풍/국립중앙박물관	5C	
	14	출토지미/상/호암미술관	5C	
	15	출토지미/상/호암미술관	5C	
	16	출토지미/상/호암미술관	6C	
가야	17	경주보문동/국립경주박물관	8C	
	총계			
17 점				

Ⅲ. 型式分類(표2~10)

家形土器는 형태상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가옥모양으로 만든 土偶와 一般容器이고 다른 하나는 액체나 소립자의 곡물을 담을 수 있으면서 이를 쉽게 따를 수 있도록 注口가 부착된 注口附容器이다. 앞에서 예를 든 17점 가운데 전자에 해당하는 토우 또는 일반용기라고 추정되는 것은 高句麗, 統一新羅 각각 1점, 百濟 2점으로 총 4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新羅·加耶지역에서 출토된 것인데 13점 중 2점은 파손된 채 출토되어 注口의 부착여부를 알 수 없으나 나머지 11점은 모두 注口가 부착된 형태의 것이다.

우선 여기서는 家形土器의 구성요소 중 6가지를 선별하여 형식분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성과 시기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家形土器의 건축학적인 측면이다.표2 가형토기는 형태별로 보면 크게 高床式과 地上式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분류의 경우 高句麗와 百濟의 것은 모두 지상식임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新羅·加耶지역의 것은 고상식과 지상식이 혼재하고 있지만 고상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상식은 6세기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상식은 5세기에 해당하는 것이 집중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우선 家形土器는 高床式에서 地上式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다음 高床式은 다시 單柱式²¹⁾, 多柱式, 重層式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출토지가 명확한 사례를 근거로 그 선후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4세기 후반경으로 편년되는 慶州舍羅里 출토 家形土器는 單柱式으로서 현존하는 유일한 예이다. 그리고 6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는 昌原茶戶里 출토의 것은 多柱式 중 8柱式에 해당되어 어느정도 시기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多柱式 7점 가운데 4柱式은 경북대박물관 소장품, 숭실대박물관 소장품, 이화여대박물관 소장품, 소창수집품으로 총 4점이고 나머지 창원다호리 출토의 것은 8柱式이며 호암미술관 소장품과 호림박물관 소장품은 9柱式이다. 이렇게 4柱式에서 8·9柱式 家形土器로 변천하는 과정은 토기자체에 시문된 문양에서도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高床式은 單柱式→多柱式(4柱式)→多柱式(8·9柱式)→重層式→地上式으로 각각 변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²⁾ 그러나 重層式의 경우

21) 여기서 單柱式에 해당하는 것은 경주사라리5호 출토의 가형토기이며 엄밀하게는 臺脚式이라 할 수 있으나 기둥을 형상화하였다는 관점에서 단주식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22) 일본의 高床建築을 참고하면 梁間一間型이 彌生時代에서 古墳時代 前期까지 존재하다가 소멸되고, 彌生時代 後期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總柱型이라는 新形式이 등장한다. 그리고 家

사용시기를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多柱式과 동시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신라 또는 가야지역에 국한된다는 지역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앞으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붕의 형태이다. 표3 家形土器의 지붕은 우진각형, 맛배형, 맛배·우진각형, 팔작형의 4가지 유형이 보이고 있다. 그 중 高句麗의 것만 특별히 우진각형이어서 주목되며, 유사한 형태의 것을 고구려 벽화고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계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百濟와 新羅·加耶지역의 경우는 맛배형이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지역성은 당시 강우량이나 강설량과 같은 기후 또는 자연환경과 깊게 관련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옥의 용도와 관련된 것인지 자세하지 않지만 전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 특이한 것은 重層式 建物の 지붕형태인데 한쪽 측면은 맛배형이고 나머지 정면과 후면은 둥글게 우진각형을 이루고 있는 혼합형태라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향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늦은 시기가 되면 팔작형의 지상식으로 바뀌어지는 경향은 분명한 듯하다.²³⁾

셋째 지붕을 덮은 재질이다. 표4 지붕의 재질은 외형상 초가지붕과 기와지붕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高句麗와 百濟의 가형토기는 모두 기와지붕을 표현하고, 新羅·加耶지역의 것은 초가지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지상식의 경우에는 모두 기와지붕으로 표현하는 점인데 이러한 현상은 대개 늦은 시기라는 시기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고상식의 경우는 모두 초가지붕이다. 초가지붕은 문양에 따라서 소문, 침선문, 덧띠문으로 구분되고, 기둥의 변천과정과 맞물리면서 대체적으로 素文에서 有文으로 변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네째 창 또는 문 시설의 표현 위치이다. 표5 高句麗와 百濟의 가형토기는 건물의 정면에 두 개의 출입시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출입시설은 개방적으로 뚫린 형태이다. 반면 新羅·加耶지역의 것은 정면보다는 측면에 표현된 예가 많고 빗장을 걸어 잠그거나 선각으로 나타내어 폐쇄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출입시설의 정·측면 배치의 차이는 고구려·백제 지역과 신라·가

形植輪의 경우에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는 고상건물과 단층건물이 병존하다가 6세기 이후로는 단층건물만이 유행한다.(官本長二郎『日本原始古代の住居建築』, 中央公論美術出版, 平成八年, pp.180-182)

23) 팔작지붕이 중국 중원지방의 漢式이라고 한다면 우진각지붕은 북방성의 遼式구조라고 할 수 있다. 삼국에는 당나라와의 교류이후로 팔작지붕이 크게 보급되었다고 추측된다.(申榮勳, 『한국의 살림집』, 悅話堂, 1983)

아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징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정면으로 바뀌어지는 순서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시기성도 파악 가능하다.

다섯째 注口의 有無와 위치이다. 표6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高句麗와 百濟의 가형토기에는 注口가 부착된 예가 없다. 그러나 新羅·加耶지역의 가형토기에는 注口가 부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注口는 1개 내지 2개를 부착하는 것이 보통이며, 부착된 위치에 따라 그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즉 注口는 지붕의 정면에서 건물의 측면으로 위치가 바뀌어지는 듯하다. 그리고 重層式의 경우 건물 정면에 원통형의 注口가 부착되어 마치 집의 굴뚝과 같은 느낌을 갖게도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늦은 시기의 것임을 암시하기도 하여 주목된다.

注口附 家形土器는 新羅·加耶 지역의 공통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A형~D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표7

그 중 A형에서 C형까지는 모두 高床式이며 초가지붕 형태의 것이다. 이는 기둥의 수, 주구의 부착위치, 표면에 시문된 문양 등에 의해 세분된다. 즉 A형은 기둥이 1개에서 4개이고 지붕의 정면에 注口가 부착되며 지붕은 素文이다. B형은 기둥이 8개에서 9개이고 注口는 건물의 측면에 부착되며 지붕에는 침선문과 덧띠문 등이 시문되어 있다. C형은 高床式 가운데 重層式으로 굴뚝 형태의 注口는 건물의 정면에 위치하고, 지붕에는 침선문과 덧띠문이 시문되어 있다. 그리고 D형은 地上式으로 전기한 A형~C형에서 추정되는 초가지붕이 아니라 기와지붕이고, 注口는 지붕 정상에 부착되며 지붕에는 골을 그어 기와를 나타내는 침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注口附 家形土器는 용기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家形土偶와는 명확히 구분되고 新羅·加耶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남부지역 고유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家形土器의 正面 幅과 總高의 比較 분포도이다. 표8·9 크게 2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 1그룹은 5세기에 집중되는 高床式 家形土器群으로 높이 11cm~21cm, 정면 폭 6cm~15cm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다른 1그룹은 6세기 이후의 地上式 家形土器群으로 높이 28cm이상, 정면 폭 36cm이상이다. 즉 高床式과 地上式은 규모면에서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며 늦은 시기일수록 家形土器는 현저하게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크기의 변화는 가형토기의 용도의 변화와도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건물과 기둥의 비례는 대개 기둥의 높이가 건물의 높이보다는 작은 편이다.

표 2. 건축형태

구분 삼국	일련 번호	高床式			地上式	
		單柱式	多柱式			重層式
			4	8・9		
고구려	1				○	
백 제	2				○	
	3				○	
신 라 . 가 야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표 3. 지붕형태

구분 삼국	일련 번호	우진각형	맞배형	맞배· 우진각형	팔작형
고구려	1	○			
백 제	2		○		
	3		○		
신 라 · 가 야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표 4. 지붕재질

구분 삼국	일련 번호	초가지붕			기와지붕
		소문	침선문	덧띠문	
고구려	1				○
백 제	2				○
	3				○
	4	○			
신 라 · 가 야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표 5. 창(문)위치

구분 삼국	일련 번호	정면	측면
고구려	1	○	
백 제	2	○	
	3	○	
	4		○
신 라 · 가 야	5	·	·
	6	·	·
	7	○	
	8		○
	9		○
	10	·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표 6. 注口の 有無와 위치

삼국	구분	일련 번호	주구	주구갯수	주구위치			
					지붕정면	지붕정상	건물측면	건물정면
고구려		1	.	.	.	.	.	.
	백제	2	.	.	.	.	.	.
		3	.	.	.	.	.	.
신라 가야		4	○	1	○			
		5	○	1	○			
		6	○	2	○	○		
		7	○	2		○	○	
		8	○	2		○	○	
		9	○	1			○	
		10	○	1			○	
		11	?	?				
		12	?	?				
		13	○	1				○
		14	○	1				○
		15	○	1				○
		16	○	1		○		
		17	.	.	.	.	.	.

표 7. 注口附 家形土器의 類型

구분	유형	A 型	B 型	C 型	D 型
모 사 도					
특 징		고상식(기둥 1·4개) 주구위치는 지붕정면 초가지붕 소문	고상식(기둥 9개) 주구위치는 건물측면 초가지붕 침선문, 덧띠문	고상식(중층식) 주구위치는 건물정면 초가지붕 침선문, 덧띠문	지상식 주구위치는 지붕정상 기외지붕 침선문

표 8. 家形土器 正面幅・總高比 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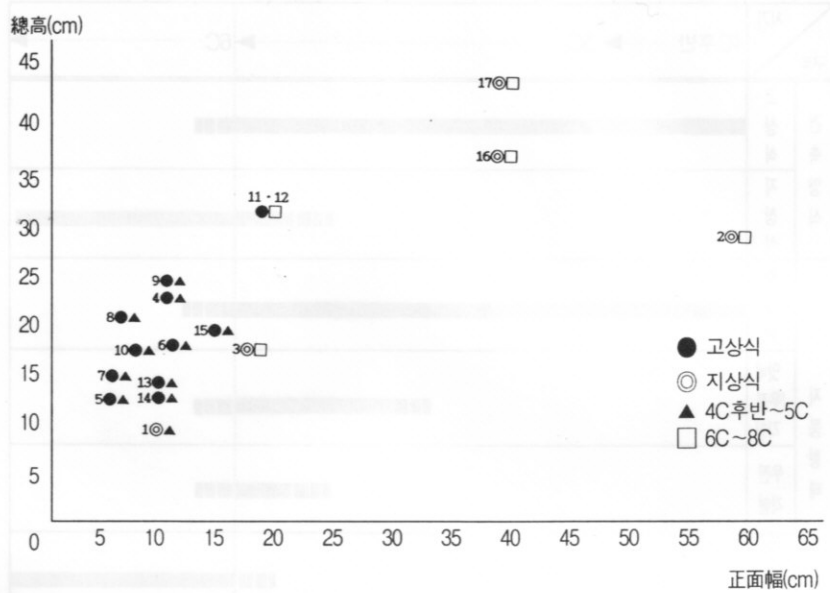


표 9. 家形土器 規格

구분 삼국	일련 번호	높이 (cm)	정면폭 (cm)	건물:기둥비례 치수	시기	분류 삼국	일련 번호	높이 (cm)	정면폭 (cm)	건물:기둥비례 치수	시기
고구려	1	8.3	10.0	·	5C	신라 가야	11	28.0	17.5	1:0.9	6C
백제	2	28.5	57.0	·	6C		12	28.0	17.5	1:0.9	6C
	3	15.2	17.0	·	6C		13	12.5	8.9	?	5C
신라 가야	4	20.3	10.8	1:1.1	4C		14	11.9	9.6	?	5C
	5	11.5	6.4	1:0.8	5C		15	16.8	14.3	?	5C
	6	16.0	10.3	1:0.2	5C		16	35.0	36.8	·	6C
	7	13.5	6.5	1:0.7	5C		17	43.5	36.0	·	8C
	8	17.4	6.8	1:0.4	5C						
	9	20.3	10.7	1:0.4	5C						
	10	15.5	8.6	1:0.6	5C						

※ 정면 폭은 높이의 비례에 의해 사진상 켜 것도 포함된 것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표 10. 家形土器 細部樣式의 變遷

구분		시기		
		4C 후반	5C	6C
건축양식	고상식			
	지상식			
지붕형태	맞배형			
	맞배/우진각형			
	우진각형			
	팔작형			
지붕재질	초가			
	기와			
창/문위치	측면			
	정면			
주구유무	유			
	무			
높이(cm)	8~21			
	21~44			

이상 6가지 구성요소의 분석 결과, 세부구성요소들이 시기적, 지역적으로 상호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10 먼저 시기적으로 크게 5세기와 6세기 이후로 나누어 보았을 때 5세기에 해당하는 家形土器는 高床式 건물에 지붕은 맞배형이 주류를 이루며 초가지붕이다. 그리고 창 또는 문의 위치가 건물의 측면에 표현되고 注口가 부착된 예가 대부분으로 토기의 높이는 8cm~21cm 사이이다. 반면에 6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家形土器는 地上式 건물에 지붕은 맞배형과 팔작형이며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창 또는 문의 위치가 건물의 정면에 표현되며 注口가 부착된 예가 드물고 토기의 높이는 21cm~44cm 사이로 전자에 비해 규격이 커진다.

이렇듯 家形土器는 시기별로 현저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고, 이와 함께 지역적인 특성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5세기에 해당하는 가형토기는 新羅·加耶지역에서 집중 출토되며 6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것은 高句麗, 百濟지역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다만 그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아 좀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차후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발굴유물의 증가를 기대해 본다.

IV. 造形的 意味와 用途

1. 造形的 意味

가. 1차적 의미

家形土器가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高床建物이라는 점이다. 고상건물이란 가옥 본체의 바닥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설치된 건물을 말한다. 이 건물의 장점은 지면으로부터의 습기방지, 홍수에 의한 침수예방, 짐승·해충·독초로부터의 피해방지, 청결유지, 여름철의 피서효과,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기복이 많은 산지와 같은 지형에서도 특별한 토목작업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高床建物은 문헌에서 干欄²⁴⁾, 京²⁵⁾도 17·18, 殷²⁶⁾ 등의 명칭으로 찾아볼 수

24) 《魏書》卷101 - …獐者 蓋南蠻之別種 自漢中 達于印笮川洞之間…依樹積木 以居其上 名曰 早蘭干蘭 大小隨其家口之數…

《舊唐書》卷197, 《新唐書》南平獐 - …土氣多瘴癘山有毒草及沙風蝮蛇 人竝樓居 登梯以上 呼爲干欄…

있는데 干欄은 고상건물의 주거 기능을, 그리고 京과 殷은 창고 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高床建物은 여러가지 기능이 예상되지만 주로 여름철의 주거²⁷⁾나 창고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高床式 家形土器의 원형이 창고였을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검증하는 입장에서 여기서는 그 사례를 고구려 고분벽화,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실물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桴京²⁸⁾으로 짐작되는 벽화가 보인다. 즉 桴京은 고구려에서 창고로 사용되어진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상에서 이격해서 설치되는 고상건물의 형태로 추정되는데 다음 고구려 고분벽화의 3기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麻線溝 第1號 壁畫古墳²⁹⁾은 인물풍속도가 그려진 4세기 후반에서 5

《梁書》林邑傳 - …其國俗 居處爲閣 名曰干欄…

25) 《三國志》卷30魏書30 高句麗傳 - …無大倉庫 家家自有小倉 名之爲桴京…

《說文解字 義證》卷十五 四 倉條 - …倉, 穀藏也…

《說文解字》- 둥근 창고는 困(𡩇), 모난 창고는 京으로 규정한다.

《廣雅》- 京은 倉으로 규정한다. 즉 京과 倉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적기한다.

《秦策》《呂氏春秋》仲秋紀立 - …圓曰困 方曰倉…

《翰苑》卷30 百濟條 - …其內官有前內部·穀部·內部·掠部功德府…

《北史》卷94 列傳82 百濟傳 - …內官有…內掠部·外掠部…

《三國史記》卷40 職官條 - …內官有…前內部·穀內部·內掠部·外掠部…

《農書》卷16:元의 王禎 所著 - …京 倉之方者 廣雅云 字從『𡩇』 原倉也 又謂 四起曰京 今取其方而高 大之義 以名倉曰京 則其象也 夫困京有方圓之別 北方高亢 就地植木 編條作甍 故圓 卽困也 南方墊涇 離地嵌板作屋 故方 卽京也 此困京又 有南北之宜 庶識者辨之 擇而用也 時云大倉倉廩 次困京 名貯梁糧 取象成可 是今迷古制 方圓未識有他名…

26) 明의 顧訥《海槎餘錄》黎人考 - …黎俗 藏置酒米乾肉衣布之屬 不于其家 必擇一高坡之地 離家百步內外 以草樹略加綵繞迴護 輩置其中 各曰殷…

明의 黃佐《廣東通志》卷68 - …藏物以殷…

淸의 張慶長《黎岐紀聞》 - …以牛之有無寡計貧富 大抵有牛家卽殷…

27) 《禮記》卷9禮運 - …昔者先王 未有宮室 冬則營窟 夏則居橧巢…

《晉書》卷47 列傳67 肅慎氏傳 - …肅慎氏一名挹婁…居深山窮谷 其路險阻 車馬不通 夏則巢居 冬則穴處…

《日本書記》 - …冬則宿穴 夏則住…

28) 桴는 회의문자로 木과 孚의 합성어로서 孚는 ‘불이다’는 뜻을 가진다. 즉 桴는 나무로 결구된 귀틀집과 같은 형태의 건물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京은 창고의 뜻으로 쓰인 용례가 있어 주목된다. 4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되는 고구려 안악 3호 벽화고분의 동측실 동벽 위에는 우산각집의 고깃간(肉庫)그림과 함께 ‘京屋’이라 여겨지는 朱書가 있다. 이 경옥의 경은 부경의 준말이 아닐까. 즉 경옥은 기능적으로 볼 때 庫舍에 대한 이칭이 분명하다.(崔憲燮, 「高床建物址의 機能에 대한 小考」 『昌原大學校 博物館 年報』, 2000, pp.97-111)

29)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吉林輯安麻線溝一號壁畫墓」, 『考古』, 1964年 第10期, pp.520-528
金正基, 「高句麗壁畫古墳에서 보는 木造建物」 『金載元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69, pp.867-899

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는 고분으로서 연도, 전실, 측실, 현실로 이루어진 횡혈식고분이다. 현실에 그려진 주인공 부부의 실내생활을 중심으로 좌측실에는 사냥하는 장면과 푸주간 등을 묘사한 벽화가 보이고, 우측실에는 고상건물과 함께 디딜방아, 외양간, 구름과 새 등을 그린 벽화가 있어 당시 생활풍속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우측실에 묘사된 고상건물은 본체가 2동으로 된 귀틀집이지만 지붕이 하나로 된 우진각형이다.³⁰⁾도19 그리고 다른 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와골을 나타내는 선이 없고 용마루 끝에도 자주 보이는 鷗尾가 없어 기와 지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지붕 정상에는 마치 제비가 나르는 듯한 형상의 장식물 2개가 얹혀 있고, 본체 정면에는 창 또는 문과 같은 시설로 생각되는 방패형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본체는 지상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어 이격된 형태이고 6개의 平柱³¹⁾가 표현되어 있다. 건물의 아래에는 디딜방아로 보이는 기기가 있는데 이것을 건물의 築臺와 두 사선으로 연결시켜 상호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은 중국 四川省 彭縣 出土 春米畫像塼³²⁾도20에 나타나고 있는데 디딜방아로 탈곡한 곡식을 배후의 고상건물에 저장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다음 德興里 壁畫古墳³³⁾은 408년이라는 紀年銘이 남아있고 인물풍속도가 그려진 횡혈식고분으로 연도, 전실,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의 벽화는 주인공의 살림집 생활상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북벽에는 주인공의 실내생활도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동벽과 서벽에는 가로 세로로 선을 그어 벽면을 4등분으로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232-234

30) 귀틀집은 통나무를 井字形으로 귀를 맞추어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너와·굴피·화피 등으로 지붕을 이어 만든 집을 말하며, 한 지붕 밑에 나란히 두 채의 귀틀집이 있다는 사실은 일본 奈良市에 있는 東大寺의 正倉院이 귀틀집 창고로 雙倉이었다는 점과 비교되어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31) 벽화에 나타난 기둥의 개수는 그림이라는 한계상 실제건물에 쓰이는 기둥의 개수와 동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일단 벽화속에 표현된 기둥의 개수만을 언급하였다.

32) 이 畫像塼의 상단에는 4개의 큰 말뚝 위에 기와지붕을 한 곡창이 1동 있고, 하단의 왼쪽에는 두명이 낮은 대 위에 서서 방아를 밟아서 탈곡하는 장면과 오른쪽에는 한 명이 탈곡한 곡물을 기울이고 나머지 한 명은 부채 모양으로 생긴 것을 두 매 쥐고 바람을 일으켜서 겨를 제거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後漢, 高28.1cm, 長47.6cm, 厚6.2cm(『陝西省博物館』, 中國の博物館, 講談社, 1983)

33) 김용남, 「새로 알려진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하여」, 『역사과학』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pp.41-45

주영현, 「주요 고구려벽화무덤의 주인공 문제에 대하여」, 『高句麗古墳壁畫』, 朝鮮畫報社, 1986, pp.1-9

최무장·임연철 편저, 『고구려벽화고분』, 신서원, 1990, pp.304-309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120-123

구획하고 각 구간에는 각각 다른 내용의 그림으로 채웠는데 건물, 말을 타고 활 쏘는 경기, 못 가운데 핀 연꽃, 불교의 칠보행사 등을 볼 수 있고 남벽에는 마굿간과 외양간 등이 그려져 있다. 특히 현실 서벽에 그려진 고상건물은 2동을 나란히 묘사하고 있는데,²¹ 墓誌의 ‘…旦食鹽豉食一椀…’에서 ‘椀’은 곧 桴京을 가르키며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벽화의 박락이 심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른쪽에 그려진 건물은 2개의 平柱 위에 본체를 올려놓은 고상식으로서 2층 건물로 추정된다. 한 인물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지붕을 사격자문으로 표현하여 초가지붕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보인다. 왼쪽 건물 역시 3개의 平柱 위에 본체가 올려진 고상건물로 麻線溝 壁畫古墳에서의 고상건물과 흡사하다고 생각된다. 역시 우진각형 지붕에 사격자문이 표현되어 초가지붕을 엮어놓은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등분으로 구획된 벽체 구간에는 각각 방형선으로 창문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八清里 壁畫古墳²²은 인물풍속도와 사신도가 그려진 황혈식고분으로 대략 5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석실은 연도, 전실, 현실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의 북벽에는 주인공의 실내생활, 동벽에는 건물, 전각, 인물 및 청룡, 그리고 서벽에는 외양간과 인물 등을 묘사해 놓고 있다. 그 중 현실 동벽의 건물 그림이 주목된다.²³ 벽면 손상이 심해 전모를 알 수 없으나 같은 축대 위에 상이한 몇 동의 건물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겨우 일부만 남아 있다. 즉 왼쪽의 경우 매우 큰 기와집의 한쪽 모서리가 남아 있는데 대문간에 여자 한 명과 오른손에 그릇을 받쳐 든 남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난간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붉게 채색된 2개의 平柱를 받친 고상식이다. 지붕은 우진각형으로 생각되지만 그 재료는 명확하지 않다. 이 건물은 중앙에 장방형 창문이 있고 가로로 그어진 선으로 보아서는 귀틀집이라고 생각된다. 건물 뒤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밑에서 한 남자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길쭉한 자루모양의 물건을 양손으로 올려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역시 창고에 곡식이나 소금을 담은 자루와 같은 내용물을 옮기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어 저장 기능을 가진 창고건물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高床建物은 주인공의 실내생활 장면을 중심으로 그 측면에 배치된 부속건물이라는 점과 문헌기록의 桴京을 참고하면 용도가 창고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고상건물

34) 전주봉, 「최근에 발견된 고구려벽화무덤」 『문화유산』, 1961, pp.58-64

최무장·임연철 편저, 『고구려벽화고분』, 신서원, 1990, pp.271-277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284-291

의 세부적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기둥은 평주식이고 지붕은 우진각형이며 귀틀집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체 정면에 출입문 혹은 창문이 있고, 사다리를 구비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붕의 재질은 초가(짚이나 갈대, 억새풀)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구려 고상건물의 세부적인 공통점은 신라·가야지역의 가형토기와는 상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주목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建築明器는 漢代에 상당수 출토되었다.³⁵⁾ 한대 건축명기에는 사람이 기거하는 저택과 누각,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 유람과 수렵용 원지의 水榭(水中과 水邊에 있는 고층건물), 수위의 망루가 있는 城塞, 곡물을 탈곡·제분을 하는 工房, 악부와 곡예를 연주하는 무대, 가금과 가축을 사육하는 鷄舍, 羊小屋, 豚小屋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 형태의 것은 畫像資料나 建築明器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雲南省 石寨山 前漢墓에서 출토된 다수의 유물 가운데 高床建物이 표현된 圖像資料가 5점 있다. 그 중 4점은 靑銅製의 모형건물이고,²³⁾ 나머지 1점은 銅鼓形 雙蓋銅貯貝器의 腰部에 선각된 회화자료이다.³⁶⁾도²⁴⁾ 후자의 경우 2동의 고상건물에 벼를 수납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건물에는 선각된 사다리가 걸쳐져 있고 마루 위에는 남자가 대광주리(簞)를 받아 그것을 창고 속에 수납하려 하고 있다.³⁷⁾ 四川省에도 고상건물을 표현한 몇 개의 漢代 畫像磚이 출토되었다. 즉 四川省 彭山 出土 畫像磚에는 쌀을 찻는 과정을 묘사한 그림이 있다. 탈곡하는 장면의 배후에 보이는 고상건물은 束柱 위의 토대가 마루 위의 구조체를 통째로 지지하고 있는 형태인데,³⁸⁾ 아마도 이 건물은 탈곡한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생각된다. 廣州漢墓에서도 실로 다채로운 고상건물을 표현한 明器가 출토되고 있다.³⁹⁾도²⁵⁾ 廣州漢墓로 대표되는 陶倉은 貴州, 四川 뿐만

35) 이 때문에 한대 목조건축의 연구에 있어서 현존하는 石祠, 石闕, 畫像石, 畫像磚 안에 건축도형을 빌리는 이외에 건축명기가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36) 貯貝器는 일종의 저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장의 기능을 하는 용기의 표면에 고상건물의 묘사는 곡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37) 여기에 묘사된 건물은 橫材를 井桁狀으로 조합한 校倉式의 高床構造와 맞배지붕이 복합화한 건물이다. 주목되는 것은 累木式의 벽이 마루위에서 마루 아래에까지 보이고 지면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마루 위만이 아니라 마루 아래의 벽체를 被荷重構造體로 만든 것으로 이는 북방계 고창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淺川滋男, 「高倉の民族考古學」 『クラと古代王權』, ミネルヴァ書房, 1991)

38) 이같은 마루구조법은 四川의 住居系陶屋이나 貴州의 高倉明器에 더욱 선명히 나타난다. 이로 볼 때 동시대의 雲南과는 현저하게 다른 구조의 고상건물이 사천과 귀주에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니라 江西·湖南·湖北에서 中原以北에 이르기까지 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河南省의 密縣 后土郭¹號 漢墓에서 출토한 고상건물은 내부에 조가 가득 차 있어 이런 형태의 건물이 穀倉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⁶

일본에서도 야요이시대 중·후기의 건축회화가 동탁 2점을 포함해서 토기 선각화를 중심으로 14개 유적에서 43점의 보고 예가 있다.⁴⁰⁾ 그 중 고상건물은 주거나 망루 혹은 수납을 할 수 있는 창고로 보고 있다. 또한 고분시대에 다수 제작된 家形埴輪은 그 배치 형태상의 기능을 규모와 형식으로 구분하면 단층건물은 主殿과 副屋, 고상건물은 祭殿과 倉庫등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붕은 주전과 제전은 팔작과 우진각으로, 부속과 창고는 맞배지붕의 경우가 대부분이다.⁴¹⁾

지금까지 한·중·일 관계자료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高床式의 家形土器는 역시 창고를 원형으로 제작된 조형물이며 그것은 일상생활 용구라기보다는 사후세계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을 기원하던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에서 빚어진 소산물임을 예상할 수 있다.

나. 2차적 의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高床式 家形土器는 1차적으로는 창고를 모델화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세계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볼 수 있는 고상창고는 수납기능 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몇몇 경

39) 특히 『廣州漢墓』는 前漢中期에서 後漢後期까지의 다수의 고상건물을 일관된 형태분류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다. 예를들면 방형평면의 倉의 경우는 지붕에 처마가 붙은 I 형과 붙지 않는 II 형, 벽면에 前廊이 붙은 ①식과 ②식을 조합해서 모두 4형식으로 분류하고, 원형평면의 冢의 경우는 지붕이 우산형으로 용마루도 돌기도 없는 I 형과 지붕의 정상부에 원형의 돌기가 붙은 II 형으로 분류한다. 다만 마루위와 마루 아래에서 구조를 분리하는 수법은 대부분 공통되고 있고, 貴州와 四川지역과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陶製 高床建物 이외에도 前漢 中期에 속하는 石製와 木製의 高床建物形 明器도 출토되고 있다.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廣州市博物館, 『廣州漢墓』, 文物出版社, 1981)

40) 그 출토지역은 奈良, 大阪, 兵庫, 岡山, 鳥取, 福井, 香川, 熊本 등으로 西日本에 집중되어 있다. 이같은 건축회화에서 건축형식을 분류하면 크게 수혈주거, 단층건물, 고상건물, 중층건물의 4형식으로 중층건물이 1개, 수혈주거가 1개, 그외에 단층건물이 18개, 고상건물이 14개, 불명확한 것이 9개로 알려져 있다.

41) 4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까지 제작되었는데 약 159개 유적에서 267점이 출토되고 있다. 家形埴輪의 형식은 平屋建物, 高床建物, 伏屋式建物로 분류하고 있다. 가형식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건축형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고분에서 식물의 배치형태도 달라진다. 屋敷構成型, 單體・2棟構成型, 囲型으로 나누고 있다. (官本長二郎, 『日本原始古代の住居建築』, 中央公論美術出版, 平成八年, pp.262-264)

우가 있다.

첫째, 高床倉庫가 穀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영적인 기물을 안치하는 예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상창고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 때로는 住居보다도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⁴²⁾ 예를 들면 필리핀의 소수민족인 이푸가오족의 고상창고에는 인간과 돼지를 모방한 ‘부롤’이라고 불리는 나무조각이 안치되어 있다. 쌀의 수확이 끝나치면 마을의 ‘부롤’을 한군데 모아 米酒를 쏟고, 떡을 얼굴에 바르며 돼지와 닭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한다. 이러한 의식에 정성이 부족할 경우 ‘부롤’은 노해서 가족의 누군가를 병나게 하거나 좋지 못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수전 도작민에 있어서는 穀靈이 머무는 穀倉이 주거보다 높은 상징성을 지니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고의 어원에 있어서 穴藏에서 유래하고, 墓를 의미한다는 설이 있다.⁴³⁾ 墓를 창고라고 부르는 민속의 예는 이러한 저장시설로서의 창고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高床倉庫를 墓와 결부시킨 이러한 관념은 실제로 고상창고를 葬地로 사용한 풍습의 자취일 것이라고 생각된다.⁴⁴⁾ 곡창과 묘의 관계는 남서제도에서 더욱이 동남아시아의 고상주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며 보편적인 관념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곡창과 죽음의 상징적인 결부는 고상주거의 마루아래를 지하계로 간주하고 마루아래에 사자를 매장하는 습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⁴⁵⁾ 모룩카제도의 레티섬과 키살섬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한 고상공간에 죽은 사람의 형태를 한 작은 목제 우상으로 대체하여 안치하며 의례용의 신성한 화로를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매년 새로운 수확을 가져다주는 穀

42) 左藤浩司, 「穀倉から住居へ」, 『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辺』, 洞成社, 1998, pp.420-439

43) 池浩三, 『祭祀の空間: その民俗現象の諸相と原型』, 相模書房, 1979

44) 보르네오의 잉가쥬·다야쿠족의 성스러운 집의 이미지 가운데에 고상주거는 나가(水蛇)로 조형된 기둥 위에 본체를 세우고 지붕에는 犀鳥가 앉아 있다. 나가는 지하 여신의 상징이고 서조는 천상신을 나타내고 있다. 성스러운 집은 이 천상계와 지하계의 交點으로 그것들을 결부시켜 이미지화하고 있다. 수마트라 북서의 니아스 섬에도 가옥의 지붕속에 조각한 새는 천상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루아래에는 지하계를 나타내는 물뱀이 조각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장의 집이 건설되고 마루 아래에 있는 네모서리의 기둥 아래에는 지하신을 위한 공물로서 인간의 두개골이 매납되고 용마루의 가까이에는 천상신에게 봉헌하기 위한 많은 두개골이 매달려 있다. 대개의 경우, 지붕속은 精靈들이 사는 영역이고 수확제, 결혼식, 장례식 등의 특별한 날에는 지붕속에 供物을 봉헌하거나 의례적인 調理와 신과의 共食이 거기서 행해진다. 고상주거의 지붕속은 정령들이 거주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고 거주인들은 그 아래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左藤浩司, 「穀倉から住居へ」, 『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辺』, 洞成社, 1998, pp.420-439)

45) 左藤浩司, 「穀倉から住居へ」, 『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辺』, 洞成社, 1998, pp.420-439

靈의 생산력을 기원함과 동시에 죽은자 혼의 재생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푸가오족의 경우에는 중요한 인물의 유해를 穀倉과 동일형식의 건물에 매장하는 습속이 있다. 이때에는 건물 마루에 구멍을 뚫어 부패하기 시작하는 유해의 체액은 이 구멍을 통해서 집밖으로 떨어진다. 이 일종의 2차장 습속은 死者의 부와 위신의 표현수단이 된다. 또한 스라웨시섬의 사단, 토라자족의 성대한 매장의례의 과정에서 유해는 주거 가운데서 곡창의 마루아래에 설치된 테라스로 이동된다. 테라스에는 죽은자를 모형화한 나무인형이 설치되고 죽은자의 혼령은 지상을 해매는 죽은 靈에서 벼를 수호하는 祖靈의 지위로 옮겨간다고 생각한다. 매장의례를 마친 유해는 다시 곡창과 닮은 구조의 御輿에 들고 장자인 기슭 위 동굴에 운반되어진다. 이러한 마루아래로의 여행을 떠난 死者의 영혼은 다시 집을 수호하는 祖靈으로서 주거의 지붕 속에 재생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마루아래는 바다의 저편 死者의 나라인 동시에 죽은 영에서 祖靈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혼의 편력(돌아다님)을 통해서 지붕 속과 결부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高床倉庫의 공간을 지붕 속, 고상 위, 고상 아래로 삼분할해서 각각 천상계, 인간계, 지하계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예는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주거에 없는 규제와 습속이 穀倉의 경우만은 완고하게 지켜지고 조상은 곡창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즉 高床倉庫는 穀靈과 祖靈을 매개로 타계와의 연결다리가 되는 장소로서 창고가 지니는 초월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셋째, ‘高床’이라는 자체가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의 본토족은 일상생활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고상공간을 그대로 주거내에 잔존시키면서 1년에 한번 농경의례를 행하는 장소로 사용한다.⁴⁶⁾ 그리고 북유럽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유라시아지역과 동시베리아 아무르지역 북방민족들의 神殿

46) 필리핀의 본토족은 고상공간의 아래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결코 고상위에서는 살려고 하지 않는다. 고상위의 공간에는 탈곡전의 벼와 잡곡류, 그리고 보존용의 고기를 넣은 호 등 적은 양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식료저장고로서 고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다. 본토족은 매년 1회 주거내의 고상공간을 이용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쌀을 수확한 후 각 집에서는 고상위에 설치한 화로에 불을 두고 제물을 위한 닭을 조리한다. 이 의식은 수확제의 개막을 고하며 穀靈을 고무해서 풍작을 기원하는 역할을 했다. 수확한 쌀은 群倉 또는 주거의 마루아래에 설치한 쌀독에 보관하고 주거의 고상부분에 쌀을 저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경의례를 행함에 있어서 주거내의 高床은 高床倉庫와 강한 결부를 시사하고 있다. 고상주거의 공간은 이러한 고상곡창의 상징성을 계승하는 형태로 생겨나고 곡창 전용이 아닌 경우에 주거의 지붕속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穀倉에서 유래하였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주거형식을 <穀倉型住居>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은 고상창고의 형태와 같은 고상식 건물의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안악3호분을 비롯한 덕흥리, 약수리, 쌍영총, 수렵총 등의 벽화에 묘사된 貴人은 언제나 신발을 벗고 대좌에 앉아 있다.⁴⁷⁾ 즉 마루방의 고상공간은 귀인의 상징이고 귀족주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高床倉庫는 사회적인 기능에서 때로는 주거 자체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귀중품의 창고 뿐만 아니라 穀靈이나 祖靈과 같은 精靈의 거주장소, 천상계와 지하계를 이어주는 매개의 구실, 더 나아가 신성한 공간으로서 공동체의 집회장소가 되며 사회생활의 중심점이 되고 권위의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高床式 家形土器를 神宮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⁴⁸⁾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高床式 家形土器가 1차적으로는 창고를 상징하고 2차적으로는 무덤에 부장된 일종의 明器라는 점에서 성스러운 관념이 내재된 당시인의 내면 세계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2. 用途

家形土器는 용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두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하나는 注口가 부착된 점에서 祭儀時에 注器로 사용되었을 경우와 다른 하나는 전기 한 바와 같이 가형토기가 창고를 모델화하였다면 곡식을 저장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먼저 注器로서의 사용 가능성이다. 家形土器는 대부분이 高床建物の 형태이고 注口가 부착된 것으로서 5세기경 新羅와 加耶지역의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家形土器뿐만 아니라 鳥形土器, 鴨形土器, 騎馬人物形土器, 馬形土器, 神龜形土器 등과 같은 象形土器가 많이 제작되었다. 象形土器는 당시에 신성시한 동물과 물체를 본떠 만든 것으로 모두 무덤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의례적인 明器의 역할을 하였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상형토기 대다수가 注口를 부착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⁹⁾

47) 《隋書》高麗傳 - …俗好踰踰…

48) 金宅圭, 「新羅의 神宮」 『新羅社會의 新研究』第八輯, 新羅文化宣傳會, 1987, pp.307-319

49) 拙稿, 「新羅 注口附容器에 대한 研究」 『文物研究』第2號,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1998, pp.79-108

拙稿, 「梁山法基里 出土 鳥形容器」 『文物研究』第3號,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1999, pp.127-169

注口の 형태와 부착된 위치가 각각 다르고, 注口가 하나인 경우와 복수의 注口가 있어 注入口와 注出口로 그 역할을 분리한 것도 있으나 모두 액체와 같은 것을 쉽게 담고 따를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다. 家形土器도 예외는 아니며 부착된 注口の 형태상 액체를 담아 따를 수 있고 또 祭儀時에는 祭酒와 같은 액체를 담아 실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담은채 부장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家形土器를 注器라는 관점에서 보면 注口附土器(注口附象形土器 포함)에 속하며, 그 분포권은 문화적인 경계권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이는 신라 문화권과 낙동강에 인접한 일부 加耶지역에서만 출토되는 경향이다. 그리고 注口附土器가 출토되지 않는 百濟와 낙동강 서안의 일부 加耶지역에서는 그 기능을 대신해서 有孔廣口小壺를 사용하였다고 생각된다.⁵⁰⁾ 다시 말하면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시기에 祭儀와 관련된 의식에서 注器의 역할을 한쪽에서는 注口가 부착된 注口附土器가 담당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有孔廣口小壺가 선호되었다고 추정된다.

다음 곡식을 넣어두었을 가능성을 살펴보면, 《三國志》魏書 東夷傳 東沃沮條⁵¹⁾에 “사람이 죽어 장사지낼 때 토기항아리에 쌀을 넣어 死者곁에 두는 습속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 三國時代 新羅의 무덤에서는 벼알 또는 벼이삭이 토기에 담기거나 행엽과 철부 등의 부장유물에 붙어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⁵²⁾ 그리고 중국 河南省 密縣 后士郭¹號漢墓에서 출토된 고상건물의 내부에 조가 가득차 있는 예도 있다. 즉 전기한 바와 같이 家形土器가 창고를 모델화한 점을 감안한다면 벼이삭을 넣어 저장의 기능을 하고, 내세에 농사를 지을 종자 또는 사자의 환생과 관련된 穀靈을 의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은 지속적인 고찰과 출토유물의 증가에 의해 장차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家形土器는 다른 象形土器와 마찬가지로 注口가 부착된 明器라는

50) 拙稿, 「新羅 注口附容器에 대한 研究」 『文物研究』 第2號, 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 1998, pp.79-108

拙稿, 「梁山法基里 出土 鳥形容器」 『文物研究』 第3號, 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 1999, pp.127-169

51) 《三國志》魏書 東夷傳 東沃沮條 - …又有瓦甔 置米其中 編縣之於櫛戶邊…

52) 慶州 味鄒王陵地區 제9구역 A-1·2·3호 묘곽, 제4구역 A지구 3호분, 제7지구 2·3호분, C지구 4호분, 皇南大塚, 飾履塚, 大邱 달서 51호분, 해안면고분, 성주 성산동 고분 등에서 출토된다. 무덤에서 실물로 출토된 자료들은 모두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의 고분에서 쌀이 아닌 벼의 형태로 부장된다.(국립중앙박물관, 거례와 함께 한 『쌀』, 2000, p.177)

점에서 그 실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인접한 중국과 일본은 물론 백제나 고구려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는 최소한 편이어서 어찌면 新羅·加耶지역의 독창적인 造形意識에서 비롯된 소산물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듯하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三國時代 家形土器의 사례를 집성하고, 세부특징을 통한 형식 분류와 시기성·지역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아울러 家形土器의 造形的 意味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用途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三國時代의 家形土器는 현재 모두 17점이 알려져 있는데 高句麗의 것이 1점, 百濟의 것이 2점, 新羅와 加耶지역의 것이 14점이다. 이를 건축 형태, 지붕 형태, 지붕 재질, 창과 문의 표현 위치, 注口の 有無와 부착위치, 正面幅과 總高의 비교분포에 따라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 시기적으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해당하는 것과 6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 상호 세부양식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적으로는 高句麗·百濟의 것과 新羅·加耶지역의 것으로 크게 이분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家形土器는 5세기에 新羅와 加耶지역의 독창적인 출토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되고 있으며 高床式建物에 注口가 부착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造形的으로 家形土器는 고대문헌의 기록과 高床式이라는 건축형태의 구조면에서 볼 때 1차적으로는 곡식창고를 原形으로 본떠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부장용이라는 점에서 당시 토속적인 원시신앙의 대상으로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家形土器의 용도면에서 두가지의 가설을 내세울 수 있었는데, 첫째 注口附 家形土器는 新羅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注口附 象形土器들과 마찬가지로 祭儀時에 祭酒와 같은 액체를 담은 실용적 용기로 사용한 후 부장하여 사후세계에서 안락한 삶을 염원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둘째 곡식창고를 원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쌀이나 잡곡 등의 곡식류를 보관하여 내세의 再生을 기원하고 穀靈의 거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家形土器는

그 형태가 高床式建物の 형태를 취하고 있어 지금까지 원류가 南方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高床建物은 남방지역의 요소라고 생각되어 왔으며 지금도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高床建物은 남방지역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캐나다, 알래스카에 이르는 광대한 북방 삼림지대에도 주요한 분포권을 이루고 있다.⁵³⁾ 《三國志》魏書 弁辰條에는 “그 나라는 累木式으로 집을 지었고 그 모양이 牢獄과 비슷하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⁵⁴⁾ 이는 귀틀집으로 볼 수 있으며, 高句麗 壁畫古墳에서 묘사된 귀틀집은 高床建物の 형태이므로 북방문화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또한 家形土器는 당시에 실재했던 고상건물을 보고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굴립주유구와 동반하는 문화요소는 남방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북방적인 요소를 띤다.⁵⁵⁾ 따라서 家形土器의 원류를 논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남방의 유입이라는 의견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북방의 유입경로에 대해서도 차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어쨌든 三國時代 家形土器는 佛教가 아직 정착되기 이전의 토속적인 원시 신앙이 왕성했던 시기에 祖上神 또는 天神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된 祭器로서 중요한 역할이 예상된다.⁵⁶⁾ 그러나 6세기 이후 이러한 器種의 소멸은 불교의 정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은 이러한 象形土器 대신에 香爐 등과 같은 佛具가 대체되는 것과 께를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확한 출토상황을 알 수 없는 단점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와 지역성을 언급함에 있어서 필자의

53) 渡辺仁氏에 의하면, 이들 고상건물은 정주경향이 있는 수렵채집민족에 탁월하고 마루위 벽 구조는 목재가 세로로 나란한 北美式과 목재가 가로로 나란한 北東아시아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북방의 고상건물은 漢文化가 침투한 이전부터 존재했고, 북방토착문화요소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고상건물의 전세계적인 분포를 시야에 둔다면 이 양자가 태고의 어딘가의 지역에 조상을 공유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渡邊仁, 「狩獵採集民の住居-北方からの視點」 『日本のすまいの源流』, 文化出版局, 1984)

54) 《三國志》魏書 弁辰條 - …魏略曰 其國作屋 橫累木爲之 有似牢獄也…

55) 우리나라에서 掘立柱遺構는 新石器時代 이래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를 들면 晉州上村里 유적에서 굴립주유구와 함께 신석기시대의 빚살문토기를 비롯해서 청동기시대의 紅陶, 孔列土器, 새김덧머문토기 등 북방계유물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굴립주건물의 유입경로가 오히려 북방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56) 신라조정이 불교를 국교로 한 뒤에도 신라에서 샤머니즘은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시조신들과 신령들을 모시는 신궁제사는 중단된 적이 없었다. 삼국시대의 불교문화는 오히려 기복적 또는 현세적 호국불교의 성격을 띤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여전히 샤머니즘이 삼국시대인들의 정신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샤머니즘은 魂靈이 죽지않고 영원히 산다는 신령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혼령이 이승과 저승사이를 오가며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다.

억측과 독단이 없지 않았음을 밝혀 두면서 앞으로 자료의 축적과 함께 재검토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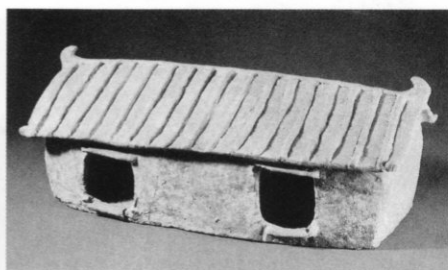
參考文獻

- 金元龍, 「新羅家形土器考」-古代韓國에 있어서의 南方의 要素, 『金載元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69
- 金正基, 「高句麗壁畫古墳에 보이는 木造建物」,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文集』, 1969
- 김용남, 「새로 알려진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하여」, 『역사과학』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 金東賢, 『中國 住宅의 類型』, 黃壽永博士古稀紀念美術史學論叢, 1988
- 權珠賢, 『加耶의 生活文化(2)』, 新羅文化 第17·18輯, 2000
- 국립중앙박물관, 『겨레와 함께 한 쌀』, 2000
-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 慶尙南道·國立中央博物館, 『昌原茶戶里遺蹟』, 2001
- 나희라, 「고대 한국의 샤머니즘」, 『韓國古代史論叢』제9집, 2000
- 다보성고미술전시관, 『다보성고미술명품전』, 1996
- 裴德煥, 『靑銅器時代 掘立柱에 대한 一考察』, 제1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학술세미나발표요지, 2000
- 三星文化財團, 『湖巖美術館名品圖錄』II, 古美術2, 1996
- 서정록, 『백제금동대향로』, 학고재, 2001
- 拙稿, 「新羅 注口附容器에 대한 研究」, 『文物研究』第2號,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1998
- 拙稿, 「梁山法基里 出土 鳥形容器」, 『文物研究』第3號,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1999
- 이난영, 『토우』, 대원사, 1993
- 李松蘭, 「古新羅 古墳出土 土偶裝飾土器에 보이는 南方의 要素」, 『考古歷史學志』第16輯, 2000
-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慶州 舍羅里 古墳群 發掘調査」, 1996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I,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주영현, 「주요 고구려벽화무덤의 주인공 문제에 대하여」 『高句麗古墳壁畫』, 朝鮮畫報社, 1986
- 전주농, 「최근에 발견된 고구려벽화무덤」 『문화유산』, 1961
- 崔憲燮, 「高床建物址의 機能에 대한 小考」 『昌原大學校 博物館 年報』, 2000
- 최무장·임연철 편저, 『고구려벽화고분』, 신서원, 1990
- 한국토지공사, 『김해장유지구 아랫덕정유적 복원공사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보고서』, 2000
-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廣州市博物館, 『廣州漢墓』, 文物出版社, 1981
- 安志敏, 「“干蘭”式 建築의 考古研究」, 『考古學報』, 1963년 제 1, 2기
- 東京國立博物館, 『寄贈 小倉コレクション目録』, 1982
- 《世界陶瓷全集》 第13卷, 河出書房, 1955
- 武志遠, 『河南省博物館』, 中國の博物館, 講談社, 1983
- 『陝西省博物館』, 中國の博物館, 講談社, 1983
- 淺川滋男, 「高倉の民族考古學」 『クラと 古代王權』, ミネルヴァ書房, 1991
- 淺川滋男, 「南方と北方のクラ」, 『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邊』, 洞成社, 1998
- 左藤浩司, 「穀倉から住居へ」, 『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邊』, 洞成社, 1998
- 「日本古代の稻倉」 『史學研究』 第56號, 東京教育大學文學部紀要, 昭和41年
- 官本長二郎, 『日本原始古代の住居建築』, 中央公論美術出版
- 都出比呂志 編, 『古墳時代の王と民衆』, 講談社, 1990



도1. 평양부근출토/
국립중앙박물관소장, 高 8.3cm



도2. 호암미술관소장, 長 57.0cm



도3. 다보성고미술전시관소장, 高 15.2cm



도5. 경북대박물관소장, 高 1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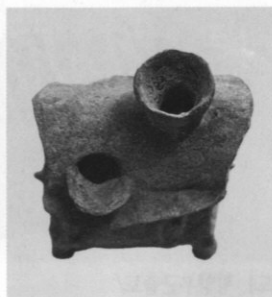
도4. 경주사리리5호분출토/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소장, 高 20.3cm



도4의 건물측면 세부



도4의 저부



도6의 상면

도6의 건물측면

도6. 傳 창녕/승실대박물관 소장, 高 16.0cm



도7의 건물정면 세부



도7의 상면

도7.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高 1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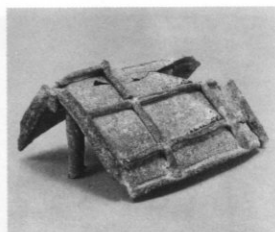
도8. 傳 경남/小倉菟集品
高 17.4cm



도9. 傳 진주/호암미술관 소장
高 20.3cm



도10. 호림박물관 소장
高 15.5cm



B1호묘 제사유구 1호 출토

B1호묘 제사유구 1호 출토

도11. 창원다호리출토/국립중앙박물관소장,
高 28.0cm(복원품)



도12의 건물정면

도12의 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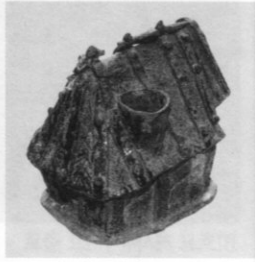
도12. 傳 현풍/국립중앙박물관소장, 高 12.5cm



도13의 건물정면

도13의 건물정면

도13. 호암미술관소장, 高 11.9cm



도14의 건물정면



도14의 건물측면

도14. 호암미술관소장, 高 16.8cm



도15. 호암미술관소장, 高 35.0cm, 長 36.8cm, 幅 2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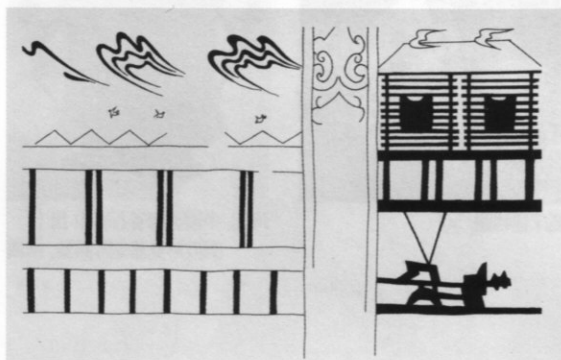
도16. 경주보문동출토/국립경주박물관소장
高 43.5cm, 長 36.0cm, 幅 28.0cm



도17. 農書所載 京圖



도18. 綠釉困, 後漢, 高 28.6cm



도19. 麻線溝 第1號 壁畫古墳 右側室 高床建物圖, 4-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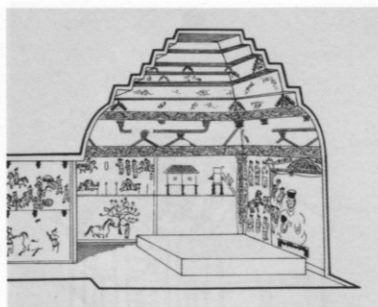
도20. 中國四川省彭縣 出土 舂米畫像磚, 後漢



도20의 탁본도



도21. 德興里 壁畵古墳 玄室西壁 高床建物圖, 5C



德興里 壁畵古墳 玄室西壁 模寫圖



도22. 八清里 壁畵古墳 玄室東壁 高床建物圖, 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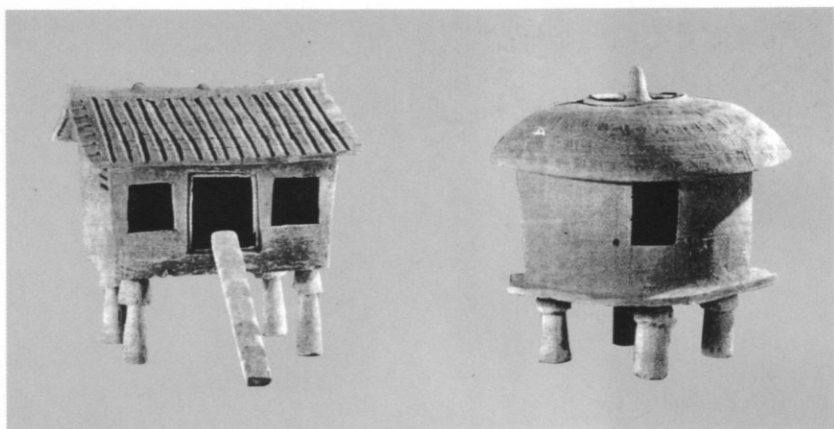
도23. 中國雲南省石寨山 出土
銅鼓形雙蓋銅貯貝器, 前漢



도24. 中國雲南省石寨山 出土 銅鼓形雙蓋銅貯貝器
腰部線刻 繪畵資料, 前漢



도24의 고상건물 세부



도25. 中國廣州漢墓 出土 倉斗 囷, 後漢



도26. 中國河南省密縣后土郭 出土 灰陶加彩倉樓, 後漢